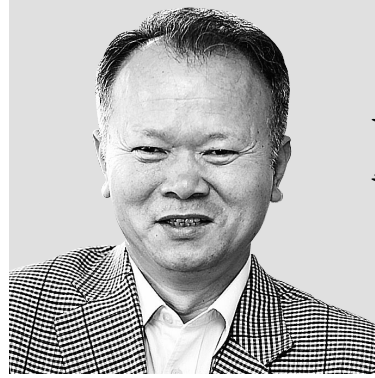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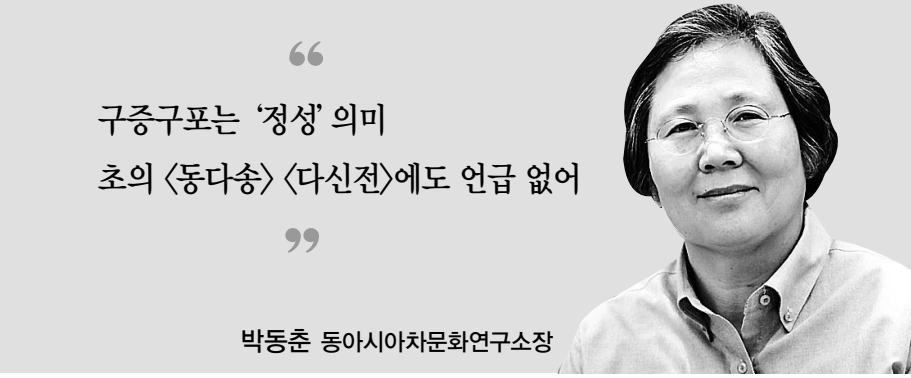


구증구포법, 초의선사 다법인가?



“ 구증구포, 19세기 남도사찰서 성행 송광사 연해적전, 초의 제자에게 수계 ”

최석환 선차문화연구회장



“ 구증구포는 '정성' 의미 초의 <동다송> <다신전>에도 언급 없어 ”

박동준 동아시아문화연구소장

최석환 선차문화연구회장 주장에 차계 논란

초의 스님의 다매(茶飯)이 송광사로 이어졌으며 그 제다법이 아홉 번 찌서 아홉 번 말린다는 '구증구포(九蒸九曝)'라는 주장이 제기돼 차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최석환 한국국제선차문화연구회 회장은 6월 6일 순천 송광사에서 열린 '다매의 재발견' 학술세미나에서 초의선사의 다매이 송광사에서도 이어졌음을 밝히고 그 다매를 이은 연해적전 스님의 제다법이 구증구포법임을 주장했다.

"송광사의 '구증구포'는 초의다매"

최석환 회장은 '연해적전의 생애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선차문화 재발견' 논문에서 "연해적전 스님을 통해 드러난 송광사 다매는 120년간 은밀히 전해졌다. 초의, 범해, 금평, 연해로 이어진 다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근래 대구 관음사 원명 스님에 의해 드러난 연해적전 스님이 금평보경 스님으로부터 대승보살계를 수지한 내용은 초의 다매이 연해적전을 통해 송광사에

와 닿은 것을 의미한다. 대승사가 초의다매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지만 금평보경 선사로부터 다매를 이은 연해적전 선사의 등장으로 해남 대흥사 다매와 더불어 송광사 다매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연해 적전(蓮海寂田, 1889~?) 스님은 1889년 4월 경남 하동에서 태어났다.

스님은 33세 때 송광사 담허존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27년 4월 초의 스님 제자인 금평보경 스님으로부터 보살계와 비구계를 받았다. 특히 43세 때인 1931년 송광사 삼일선원 원주를 맡으면서 금평보경 스님으로부터 제다매를 이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특히 연해 스님의 제다법으로 구증구포법을 들었다. 최 회장은 "차를 가마솥에 아홉 번 반복해서 넣었다가 내는 구증구포 제다법이 산사를 중심으로 은밀히 전해졌다"며 "이유원의 <임하필기>에 19세기 성행한 증거 있으며, 1929~1945년 송광사에 주석하며 다송자 금평보경 스님

의 제다매를 이은 연해적전 스님을 통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연해 스님의 음다법이 찻잎을 달여 마시는 전다(煎茶)가 아닌 찻잎을 말려 가루 내어 끓여 마시는 점다(點茶)였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조선에 점다법이 사라진 것은 고려왕조가 멸망하고 이성계에 의해 조선왕조가 건립되면서 자연스레 점다법에서 전다법으로 바뀌었다"며 원명 스님의 증언 등을 근거로 "그 점다법이 남도의 산사마다 전해진 것은 한국 차문화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말했다.

"수계 제자, 다매 평가는 무리수"

이에 대해 박동준 동아시아문화연구소장은 구증구포법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연구소장은 "만약 연해 스님이 다송자 금평보경 스님의 다매를 받았고 다송자가 범해에게 범해가 초의에게 전승받은 제다법이라면 동다송과 다신전에서 논해진 제다법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소장은 "더구나 구증구포는 제다법의 원리상 그 전거가 없다"며 "구증구포는 근래 정민 교수가 발굴한 이유원의 자료

에서 다산이 구증구포 방법을 승려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기록이 유일하다"며 "이를 근거로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제다법이 구증구포의 비방을 가진 것으로 오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소장은 또 "연해 스님이 계를 받았다고 해서 초의다매를 이었고 그로인해 연해 스님의 구증구포 법이 범해 초의 스님에서 연유된 것"이란 논리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소장은 "이미 범해 스님은 초의 차라는 시를 지어 초의 제다법의 실체를 구체화했고, 이는 동다송이나 다신전의 제다법을 방증하는 자료"라고 말했다. 이어 박 소장은 "구증구포의 9는 합리적인 원리에 규합하고, 정성을 다한다는 뜻도 있어 절차상 9번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임종욱(진주교대) 평론가 '조선 후기 다도의 중흥 초의 스님의 다도사적 위치',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의 '범해 각안의 선사상과 다사상' △송광사 현봉 스님의 '금평보경의 종통과 다매'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ui.com

울산 영축사지서 고려 청동시루 출토돼

공양물 만드는 용도 사용, 금속제 중 最古

울산 영축사지에서 고려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시루가 출토됐다. 이번에 출토된 청동시루는 완벽한 형태로 발견된 것중 가장 이른 시기의 금속제 시루다. 청주 사뇌사지 청동시루가 출토된 바 있으나 당시에는 파손된 바 있다. 청동시루는 사찰에서 불교 의식 때 떡이나 밥 등을 찌서 불전에 바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박물관 사적조사팀은 6월 8일 울산 영축사지 발굴조사 현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출토된 청동시루의 크기는 높이 24cm, 입 지름 42cm, 바닥 지름 37cm로 몸체는 원통형이며 구연부(口緣部)는 살짝 벌어지고 동체부 중간 지점에 두 개의 손잡이가 달려있다.

울산박물관 관계자는 "고려시대의 청동시루가 출토된 예는 극히 드물다"며 "이는 대부분 흙을 빚어 만든 토제시루가 일상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바닥 부분의 형태가 완벽하게 남아 있어 보존과 연구 가치가



울산 영축사지 고려 청동시루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청동항로는 높이 25.7cm, 바닥지름 23.5cm 크기로 세 개의 다리가 달린 원형 받침 위에 항로의 몸체가 얹혀있는 형태로,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장식이 화려하다. 청동완은 청동대접으로 땅에 묻힐 당시 청동항로의 뚜껑으로 전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름 15.5cm, 높이 9.5cm로 굽 부분이 약간 손상됐다.

노덕현 기자

韓, 몽골지역 불교사원 보존관리 나선다

한국이 보존위기에 처한 몽골 고대 불교사원을 보존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강순형)와 몽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센터(센터장 갈바드라흐 영호바트)는 6월 9일 몽골 문화유산센터에서 '몽골 고대 건축유산 공동 조사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몽골지역 건축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9년까지 5년간 3차원(3D) 스캔과 실측, 건축양식 조사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기술 전수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양국 언어로 된 조사연구 보고서와 디지털 자료로도 공개된다.

1차 년도인 올해는 몽골 수도에서 500km 떨어진 작은 마을인 아르항가이(Arkhangai)에 있는 고대 불교사원(Uuld Beis in Ulziit soum)을 조사한다. 이곳에

는 1797년에 건립된 티베트 양식의 불교사원이 남아 있다. 총 3동으로 이뤄진 이 사원 본당은 목조로, 부속건축물은 목조와 벽돌을 혼합해 지어졌다. 1937년에 폐사된 이후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현재 축사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내용은 주 건축물에 대한 3차원 입체영상 스캔과 실측, 부속 건축물을 포함한 사원의 건축양식과 기법 등에 대한 현장조사 등이다. 조사단은 우리 측 연구자와 몽골 측 연구자 등 총 10명으로 꾸려졌다. 조사기간은 오는 18일까지 2주간이다.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을 하반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될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연수(ACPCS)' 과정에 몽골 측 연구자가 참여해 3차원 스캔과 관련한 기술교육과 공동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학, 6차 학술발표회

6월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학연구소(소장 법안)는 6월 27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제6차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강소연 흥익대 겸임교수의 '수륙불화에서의 왕생과

정의 회화적 표현' △최성규 밀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의 '조선조 수륙불화 도상의 사상적 배경' △정기선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의 '스리랑카 불치의 일상 공양의례'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서구 화풍 반영한 패불, 근대문화재로

서양기법 도입한 근현대 불교문화재 승격 가능성 시사

근대 서구화풍이 반영된 패불도가 근대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눈길을 끈다. 근대 화승인 성업 스님의 대표작품인 대성암 패불도가 그 주인공으로 서구기법을 도입한 불교문화재도 향후 문화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자료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6월 10일 '고양 대성암 패불도'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패불도는 가로 305cm에 세로 553cm의 대형크기로 1928년 향암 성업(香庵 性業) 스님이 제작했다.

성업 스님은 20세기 초반 공주 마곡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스님으로 계몽산 화파로

불린 당시 주류화맥인 금호당 약효 스님의 제자 중 한명이다. 약효 스님은 186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초반까지 50년 넘게 불화를 그리면서 수많은 불화가를 양성했다. 약효스님과 그의 제자들은 전통적 불화기법을 따르면서도 서구 화풍으로 대변되는 음영법 등 서양화법 수용에도 적극적인 것이 특징이다.

대성암 패불도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나있다. 신체 윤곽선에 음영을 주고 중앙 본존불 법의(法衣)에도 윤곽선을 먹으로 그 후 선을 덧대어 입체감을 살렸다. 채색은 황색, 주황색, 청색, 흰색 등 근대기

불화에 많이 사용된 색상을 사용했다.

패불도 전면에 삼존불을 내세웠고 그 뒤쪽으로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아난존자와 가섭존자를 그려 화면에 꽉 차게 담은 간단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상단 좌우에 천으로 만든 복장낭(腹藏囊) 2개가 달려 있다. 복장낭은 불화를 조성한 뒤 불경(佛經) 등 복장품을 넣는 주머니로 20세기 전반 패불 봉안의식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강렬한 안료의 색감과 음영법, 독특한 문양 등 당시의 화풍을 잘 보여 주고 있다"며 "근대기 충청지역 중심 화파의 특징이 잘 표현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고양 대성암 패불도

컴퓨터 공학자, 붓다에게서 길을 찾다!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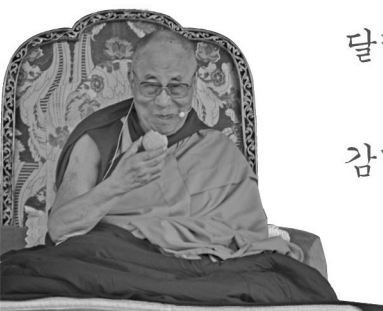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지혜롭고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인공지능이 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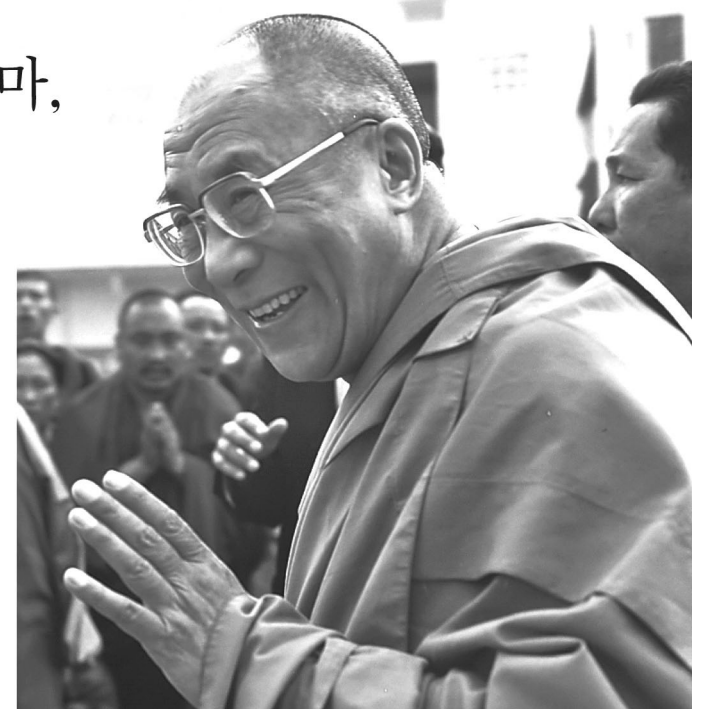
인공지능의 대가이자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폰 노이만을 계승한 저자가, 마음의 과학, 지혜의 과학을 완성한 붓다에게서 미래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하다!

지승도 저/신국판/284쪽/15,000원

사진으로 만나는 달라이 라마,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지혜의 말씀!



소박하고 인간적인 달라이 라마의 모습과 깊은 울림과 감명을 주는 가르침을 담은 책!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하라

20여년 동안 인도에 머물며 달라이 라마와 티벳인들의 수행과 일상의 모습을 사진에 담은 작가가, 그동안 찍은 사진들과 가르침을 한데 모아 엮었다.

이영자 사진/국판변형/전면컬러/280쪽/15,000원